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60호 【루계 제24473호】 주체103(2014)년 3월 1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지난해 공장을 돌아보면서 구체적인 과업을 주었는데 그것을 성과적으로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할수 있게 된것이 너무 기뻐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종합조종실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현장감시기능만을 수행하던 곳이 전반적인 생산공정에 대한 감시, 조종, 지령체계를 완벽하게 갖춘 지능화된 조종실로 전변되였다고 하시였다.

원료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들이 무인화되고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능률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무진화, 무균화가 실현되여 식료공장들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할수 있게 되였으며 소음공해를 없애고 배풍체계를 세움으로써 로동자들이 흥겨운 로동생활을 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생산공정현대화가 전반적으로 실속있게 진행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조선식의 현대화, 조선로동당에서 바라는 현대화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해당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산공정현대화를 실현하여 최고사령관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공장의 로동계급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신문 《웨크》, 에호 모스크비방송, 인터네트통신 로스발뜨, 일본의 《아사히신붕》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신데 대하여, 로씨야의 신문들인 《꼼메르싼뜨》, 《모스꼽스끼 꼼쏘몰레쯔》, 에호 모스크비방송, 마야크방송, 인터네트통신 가제따. 루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중국의 《길림신문》, 인터네트홈페지 동북망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를 보신 소식,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광명성절경축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도서 《김정은정치의 오늘》 일본에서 출판

도서 《김정은정치의 오늘》(로작을 통하여 보다)이 얼마전 일본에서 출판되였다.

에히메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표 나다 다까시가 집필한 도서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혁명활동주요월력, 로작용어해설들 등이 편집되여있다.

필자는 머리말 《조선은 변하지 않는다》에서 김정일총비서께서 서거하신 후 그이의 위업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김정은제1비서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그 어떤 사소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실례를 들고 일본인민들이 그에 대하여 똑바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 도서를 집필하였다고 썼다.

그는 맺는말 《조선을 바로 알아야 한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는데 대하여 서술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설

외세의 침략과 지배의 력사를 끝장내고 통일과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안팎의 정세가 어떻게 변한다 하여도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통일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대문을 열기 위한 우리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있다.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온 겨레의 기대와 희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3.1인민봉기 95돐을 맞이하고있다.

3.1인민봉기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반일애국항쟁이였다. 20세기초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야만적인 파쑈통치로 우리 민족의 모든 권리와 재부, 생존권마저 빼앗고 조선인민에게 상가집 개만도 못한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하였다. 우리 민족의 사무치는 분노와 항거정신은 마침내 1919년 3월 1일 거족적인 반일항쟁으로 폭발하였다. 봉기자들은 《조선독립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일제군경의 야수적인 총칼탄압에 굴함없이 맞서싸웠다. 우리 나라는 물론 해외의 조선인거주지역들에서까지 반외세자주의 물결이 세차게 일었다. 3.1인민봉기는 외세의 지배와 폭압통치를 용납치 않고 그에 목숨바쳐 항거하는 조선민족의 강한 자주정신과 불굴의 기개, 열렬한 애국심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우리 나라 반제민족해방투쟁력사의 빛나는 한페지를 기록한 3.1인민봉기 95돐을 맞으며 온 겨레는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위해 애국의 더운 피를 서슴없이 뿌린 선렬들의 고귀한 투쟁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자기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싸운 3.1인민봉기자들의 애국적기개를 이어받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할 결의에 넘쳐있다.

세월은 많이 흘렀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애국은 반외세, 자주통일투쟁에 있다. 온 민족은 3.1인민봉기자들의 애국심과 희생적인 투쟁정신을 계승하여 불신과 대결로 엮어진 민족분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과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사중의 중대사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진지도 근 70년이 되였다. 세기와 년대를 넘어 지속되고있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로 인적, 물적자원이 헛되이 소모되고 민족의 통일적발전이 지체되고있으며 핵전쟁발발의 위험도 날로 증대되고있다. 이제 더이상 대결의 악순환을 되풀이할수 없다. 온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에로 나가는 길만이 우리 겨레가 번영하는 길이다.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은 곧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고 원동력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다. 조국통일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도 우리 민족이고 그 담당자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만이 나라의 통일을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조국통일운동에 적극 구현해나가야 한다. 삼천리강토에 자주통일의 열풍이 휘몰아치던 6.15의 그날처럼 우리 민족끼리의 합성이 누리를 진감하게 하여야 한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자면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자체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여야 한다는것이 3.1인민봉기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북남관계문제,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실현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이다.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저들의 침략적리익과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 반공화국침략책동을 견결히 반대배격하고 걸음걸음 폭로분쇄하여야 한다. 조선반도평화의 암적존재이며 침략과 전쟁의 온상인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오늘 외세와 공조하고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롱락물로 내맡기는 사대매국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책동과 군국주의부활을 노린 력사외곡소동, 조선반도재침을 위한 독도강탈야망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민족이 화를 면하게 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북남관계의 전도와 관련되는 사활적문제이다. 온 겨레는 견결한 반미투쟁에 평화와 자주통일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책동을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동족에 대한 불신과 대결의식을 가셔버리며 상대방을 자극하고 위협하는 군사적적대행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민족사발전의 새시대를 펼쳐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이다. 피를 나눈 동족이며 조국통일을 최대의 민족적리익으로 간주하는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마음과 힘을 합쳐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빨리, 가장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다. 북과 남이 화해와 단합, 대화와 협력을 지향하며 함께 손잡고나간다면 얼마든지 이 땅에 평화도 가져오고 강성번영하는 통일강국도 일떠세울수 있다.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그것이 곧 조국통일이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인민들은 전민족적인 래왕과 접촉, 대화와 련대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합류해나서며 조국통일운동을 부단히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온 겨레는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뛰여넘어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애국애족에 불타는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과 불굴의 기상을 온 세계에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절세의 위인들에 의해 확고한 계승성을 가지고 승리의 한길로 전진하는 성스러운 애국위업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민족자주위업의 승리의 상징이시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실현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전체 조선민족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갈 때 조국통일은 머지않아 반드시 이룩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안고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50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50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2월 2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은 농촌문제해결의 불멸의 대강을 마련하시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농촌의 세기적인 전변을 안아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과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돐》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당, 정권기관, 농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일군들, 공로자들, 평양시내 협동농장, 기관, 기업소, 공장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박봉주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곽범기동지, 로두철동지와 김용진, 리철만, 리무영내각부총리들,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서 모범적인 일군들,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대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설계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농촌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의 세기적인 꿈과 리상이 실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데 참답게 기여해나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으로 온 나라가 들끓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에 접한 각계의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들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는 날이 갈수록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새길수록 혁명열, 투쟁열로 활활 불타게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의 자자구구를 만장약한 천만의 심장이 무섭게 폭발하고있다.

전천군당위원회 비서 박창식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의 내용을 자자구구 가슴깊이 새겨갈수록 사상리론의 거장을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벅차오름을 금할수 없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는 당사상일군들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참으로 심오한 사상들과 당사상사업을 새맛이 나게 진행할수 있는 강령적과업과 실천방도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당사상사업의 확고한 지침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군안의 모든 단위들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우리 당의 사상중시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문천탄광 지배인 김진규는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고 모든 일군들이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의 구절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시기 사상사업은 당일군들이나 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관심을 적게 돌려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받아안고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였다.

정치사업을 중요한 혁명임무로 여기고 탄부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동시킴으로써 탄광이 석탄생산에서 계속 앞장에 서나가도록 하겠다.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 설비조립직장 학습강사 오운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받아안고보니 당초급선전일군된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넘쳐난다고 하면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선전일군들과 교양망, 강연망, 선동망에 망라되여있는 초급선전일군들의 력량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이 력량이면 못해낼것도 없고 무서울것도 없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별로 한일없는 저를 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로 내세워주신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학습반성원들이 일하는 건설장들을 쉬임없이 찾아다니며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깊이 체득시키겠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기동예술선동대 대장 강영철은 격동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대회에서 연설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느라니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에 공장을 또다시 찾으시여 우리들의 공연을 몸소 보아주시면서 기동예술선동대활동에서 지침으로 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모습이 어려와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우리는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을 추동하고 선군시대의 새 문화를 창조하는데 적극 기여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에서 밝혀주신것처럼 로동계급속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경제선동활동을 공세적으로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겠다.

천성청년탄광 초급당부비서 강명수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은 당사상일군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백과전서이며 불멸의 대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전투장들을 정치사업의 활무대로 전환시키고 우리 당의 사상으로 당원들과 탄부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일상적인 사업으로 때와 장소를 가림없이 진행하여 그들이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당의 사상을 체득할수 있게 하겠다.

신천군 근로자협동농장 학습강사 류승호는 최후승리를 위한 사상전의 포문을 일제히 여는데서 당초급선전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에서 가르치신대로 당의 목소리를 제때에 알려주기 위해 하루밤에도 수십리길을 걷는 정신, 열백밤을 패가며 당정책을 학습하고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열정이 몸에 푹 배인 당초급선전일군이 되겠다. 그리하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중의 정신력이 최대로 폭발되게 하겠다.

안주시 상서협동농장 제4작업반 1분조 선동원 장향순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수천수만에 달하는 사상일군들만 잘 준비되여있어도 강력한 정예군단들을 편성할수 있으며 이 력량이면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고 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사람들의 눈빛 하나, 행동거지 하나를 보고도 마음속고충을 간파할줄 알고 그 누구를 만나도 쉽게 친숙해지고 심장의 문을 열줄 아는 능숙한 정치활동가로 준비함으로써 분조의 전투력을 떨치는데서 선군시대 선동원의 본분을 다하겠다.

선천군 석화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전영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받아안은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은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가르치시였다.

농사를 잘 짓는것이 우리 당의 사상을 관철하고 당의 농업정책을 옹위하는 전투라는것을 명심하고 올해 농장앞에 맡겨진 알곡생산목표를 빛나게 수행하기 위해 뛰고 또 뛰며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그리하여 올해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조국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철도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박찬원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접하고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당의 목소리가 잠시도 중단없이 울리게 하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 보도부문 일군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우리 기자, 편집원, 방송원들은 굳어진 낡은 도식과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격동적인 방송선전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가겠다. 하여 붓과 마이크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남포시당위원회 직외강연강사 림혜순은 당에서 새로운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면 교양, 강연, 선동망들과 출판보도수단들이 신속히 총동원되여 중앙의 일군들로부터 심심산골의 농장원들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중속에 알려주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길에서 강연강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겠다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북부철길청년돌격대 함경남도려단 려단장 황장춘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치였다.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고 모든 일군들이 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의 구절은 우리 려단일군들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우리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을 기적창조의 기본열쇠로 틀어쥐고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진공적으로 벌려 공사장을 부글부글 끓게 함으로써 려단앞에 맡겨진 공사과제를 기한전에 끝내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리겠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자자구구 학습하고있다.
-사회과학원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농촌문제해결의 대강을 마련해주신 그 업적 길이 빛나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신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력사적공적으로 됩니다.》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다.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대강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흘러흐른 장장 50년력사는 절세위인들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우리 나라 농촌에서 세기적인 전변을 이룩한 승리와 영광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다 바쳐 가꾸시고 꽃피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는 사회주의리상촌이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굳건히 담보되여있는 삶의 터전, 보금자리이다.

농민들의 념원을 정책에 담아

우리 농민들의 요구와 념원을 그대로 담은 사회주의농촌테제!

바로 여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작성발표하신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위대함이 있고 그의 크나큰 생활력과 력사적의의가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사회주의농촌건설대강을 친히 작성하시고 그의 실현을 위해 얼마나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였는가를 절감케 하는 감동깊은 사연, 김명연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들려준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한평생 언제나 그러하시였듯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구상하실 때에도 그에 우리 농민들의 요구와 념원을 그대로 담으시려 실로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주체53(1964)년 1월 24일,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땅의 이름없던 고장 장천땅을 찾으시였다. 사실 이곳보다 더 번듯하고 잘사는 농장도 있었다. 그러나 제일 뒤떨어지고 궁벽한 고장 사람들의 심정을 그대로 정책에 담으시려 절세위인들께서는 이곳을 찾으신것이다.

그때 농장의 관리일군들과 당원들은 회의에 가고 한 처녀농장원이 있었다. 그때의 그가 바로 오늘의 김명연관리위원장이였다.

삼가 인사를 올리는 처녀농장원의 손을 잡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은 주인을 만난것이 더 반갑다고 하시며 언제부터 농장에서 일하는가고 물으시였다. 한해전 청년들을 바다와 농촌으로 부르신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협동농장으로 달려나와 농사일에 땀과 열정을 바쳐가는 그가 우리 수령님께서는 더욱 대견하시였다.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담으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청년들이 농촌에 많이 지원해나와야 농촌도 발전하지라고 하시며 그의 소행을 치하해주시였다.

분배정형에 대하여 물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처녀농장원은 농장원들이 해마다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분배를 넉넉히 받지 못한데 대하여 죄다 솔직히 말씀드리였다. 그를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은 낡은것을 짓부시고 새것을 창조하며 항상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음에 넘친 말씀을 하시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장의 농사형편이며 살림살이형편에 대하여 일일이 료해하시였다. 뜨락또르문제와 부림소, 달구지문제 그리고 농촌에 나온 지원자들에 이르기까지…

처녀농장원의 말을 수첩에 일일이 적으시는 우리 수령님의 심중은 무거우시였다. 아직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곳 사람들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윽하여 갈리신 음성으로 내가 차를 타고 먼곳만 다니다나니 가까운 곳이 이런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장천을 책임지겠다고, 올해에는 이 농장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하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어느덧 해가 기울었다.

하건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처녀농장원의 말을 귀담아들으시며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한 협동농장의 평범한 처녀농장원으로부터 들으신 말이 그대로 정책에 담겨지고 력사적인 사회주의농촌건설대강으로 선포될줄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청년들이 농촌에 진출한것이 아주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동무가 농장에서 낡은것을 짓부시고 새것을 창조하라고 고무해주시였다.

못 잊을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시간 정월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밖에 계시면서 이 나라의 평범한 농장원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사회주의농촌건설대강을 구상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지켜드리시였다.

그로부터 달포후 장천협동농장(당시)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요구와 념원이 그대로 반영된 사회주의농촌테제를 받아안고 크나큰 감동과 감격을 금치 못해하였다. …

이것이 어이 장천땅에만 깃든 이야기라고 하겠는가.

혁명생애의 전기간 언제나 그러하시였듯이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를 앞둔 그 시기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온 나라의 포전길을 걷고걸으시며 농민들의 말을 귀담아들으시고 그들의 요구와 념원을 사회주의농촌테제에 다 담으시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농민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피어린 항일의 나날 친히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도 토지문제해결을 력사적인 과업으로 제기하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첫 민주개혁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시고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속에서도 농업협동화의 빛나는 실현을 안아오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사회주의농촌건설대강을 인민에게 안겨주신 그날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문제, 농업문제해결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며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주시는 크나큰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언제나 농업전선의 사령관이 되시여 농촌경리와 농업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하많은 사연들은 오늘도 인민의 심금을 울린다.

온 나라의 포전길을 쉬임없이 걸으시며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가장 과학적인 영농방법인 주체농법을 창시하시고 농업근로자들을 당의 농업정책관철에로 이끌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농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게 한 근본담보였다.

사회주의농촌테제를 발표하시여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길을 과학적으로,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한평생 정력적인 령도로 그의 빛나는 실현을 위해 헌신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업적은 번영하는 사회주의농촌의 창창한 미래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며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이 다 그러하듯이 사회주의농촌테제에도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으로 되게 하시려 불면불휴의 사색과 로고를 함께 기울이신 절세위인들의 헌신의 세계가 력력히 어려있다.

주체53(1964)년 1월의 나날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천군 읍협동농장의 포전길을 함께 걸으시며 사회주의농촌테제를 두고 뜻깊은 담화를 나누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현지에 나와서 인민들의 가식없는 말을 들으며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면서 오늘도 온천군 읍협동농장에 나왔다가 많은것을 알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도 많은것을 느꼈다고 하시면서 조금전에 수령님께서 이곳 협동농장 작업반장과 하시는 담화를 들으면서 수령님께서 요즘 집필하고계시는 농촌테제에서 제기하신 문제들이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태와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절실한 문제들이라는것을 재삼 느꼈다고 말씀드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도 작업반장의 말을 듣고 농촌테제에서 제기하려는 문제들이 옳다는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농촌의 현실태와 농촌테제에 관한 문제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방도에 관한 문제 등에로 끝없이 이어지는 절세위인들의 담화는 깊은 사색과 웅대한 목표에 대한 열렬한 지향으로 최득룡 고려의학과학원 원장이 토론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68(1979)년 2월 27일에 발표하신 로작은 인민보건사업에서 주체성, 민족성을 강화하며 우리 인민의 우수한 전통의학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고전적문헌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작에는 고려의학의 특성과 우월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그 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가 뚜렷이 천명되여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든 보건일군들이 로작의 사상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 고려의학발전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침혈정보에 의한 진단의 과학화, 현대화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고려의학부문에서 이룩된 과학연구성과들이 발표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락과 체질, 민간료법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경험적인 고려의학의 원리들을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 기여한 론문들과 각종 질병들에 대한 고려약물, 침구치료방법 등을 확립한 성과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는 민족전통의학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고려의료봉사활동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욱우에 헌신의 자욱을 덧찍으시며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였다.

불멸의 자욱이 숭엄히 어려온다.

주체98(2009)년의 겨울날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강력히 추진되고있으며 농촌에 대한 지원과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적지도방조가 강화됨으로써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고 하시며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농촌테제와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찍부터 농촌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농촌테제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농촌테제를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나날은 어버이수령님의 농촌건설구상이 더욱 꽃피고 사회주의농촌에서 눈부신 전변이 이룩된 변혁의 년대로 빛나고있다.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촌문제해결에 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농촌경리에 대한 당의 정치적령도, 국가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시고 농업생산에서 앙양이 일어나도록 이끄시였다.

농업전선을 강성국가건설의 돌파구로 내세우시고 제시하신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 등 농업혁명방침관철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선군대지우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절세위인들의 정력적인 령도따라 사회주의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된 크나큰 전변은 참으로 긍지롭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이신 농촌문제해결의 대강, 사회주의농촌테제가 있기에 우리 인민은 모진 시련속에서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빛나는 모범을 창조할수 있었다.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돐을 뜻깊게 맞이한 온 나라의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대강을 마련해주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사회주의농촌의 빛나는 현실을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께와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삼가 드리고있다.

또 한분의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희세의 위인들의 사회주의농촌건설업적은 강성국가건설진군길우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농촌테제를 발표하신 50돐을 맞으며 온 나라 인민의 크나큰 기대와 관심속에 열린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우리 당력사에서 처음으로 이 대회를 마련해주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대회참가자들의 심금을 그토록 울린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자》를 육성록음으로 청취하고 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것이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과 한평생의 업적이 력력한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영원히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전선에서 기어이 승리의 포성을 울리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은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을 끝없이 격동시키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기어이 최후승리를 떨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을 우러러, 경애하는 원수님앞에 온 나라의 농업근로자들과 천만군민이 다시금 심장으로 다진 맹세이다.

그렇다. 우리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결사의 투쟁을 벌려 사회주의농촌테제를 빛나게 실현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인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주체사상탑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동의학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발표 35돐기념

중앙의학과학토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동의학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발표 35돐기념 중앙의학과학토론회가 2월 28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보건부문 과학자, 기술자, 교원, 의료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동의학을 발전시킬데 대하여〉는 고려의학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라는 제목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 키우신 자애로운 손길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

바로 이 부름에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우리의 인민정권이 불패의 사회주의정권으로 강화발전되여온 성스러운 력사가 함축되여있다.

그 력사를 돌이켜보느라면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감사와 그리움으로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가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은 그 어느 위인과도 대비할수 없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습니다.》

주체51(1962)년 1월 어버이수령님께서 신천군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시던 때의 일이다.

어느날 황해남도 시, 군인민위원회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군인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득 한 일군에게 신천군안의 주민들이 한해동안에 소금을 얼마나 소비하는가고 물으시였다. 뜻밖의 물으심에 그 일군은 아무 대답도 올리지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럼 동무네 집에서는 한해동안에 소금을 얼마씩이나 소비하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그 일군은 이번에도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서운한 표정을 지으시고 우리 정권기관 일군들은 매일, 매달, 매해 군안의 주민들이 쌀, 소금, 장, 남새, 기름을 얼마나 소비하고있으며 심지어 외투를 입고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것까지도 다 알고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가 빨찌산투쟁을 할 때에는 매 사람들이 소금을 얼마씩 먹는가를 다 계산해가지고있었다. 나는 1946년초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기 시작하였을 때 먼저 인민들이 소금을 얼마나 먹는가 하는것부터 따졌다. …

계속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옛날에는 집안살림을 그 집 세대주가 책임졌지만 우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민들의 살림살이는 인민정권기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고, 위원장들이 자전거를 타고 수매하는데도 나가보며 집집마다 마당 한모퉁이에 약초를 몇포기씩 심게 했다가 거두어들이면 그것도 인민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것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자신께서 군을 돌아보시며 인민들과 한 담화내용을 적으신 수첩을 한장한장 번지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느날 점심때 거리를 지나다가 보니 녀성들이 쌀을 타가기 위해 모여있었는데 쌀갈은것도 집집마다 날라다주면 직장에 나가는 녀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인민정권은 우리 국토안에 살고있는 전체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수호하며 우리 나라를 더욱 부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나가는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고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임무를 더 잘 수행해나갈 결의가 불타올랐다.

이렇듯 우리 인민정권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나라와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끝없는 로고와 심혈의 숭고한 결정체이며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담보하는 만년유산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위대한 평민, 그이는 명예농장원

우리 조국강산 그 어디에나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영농전투로 들끓는 포전들이며 아담한 농촌문화주택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변모된 이 땅을 밟아보느라면 농촌테제관철을 위하여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이 가슴뭉클 어려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주체82(1993)년 11월 어느날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는 결산분배모임을 성대히 가지였다.

모임에서는 전후 사회주의농업협동화시기부터 명예농장원으로 되신 어버이수령님께 지난 기간 저금하여 두었던 분배몫을 정중히 올리는 결정이 채택되였다.

불비쏟아지는 전화의 나날 농민들과 함께 봄씨앗을 뿌리시던 그때로부터 농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농장살림살이를 일일이 돌보아주신 우리 수령님,

자신께서도 여기 조합원이라고, 농사를 잘해서 조합을 발전시켜보자고 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름없는 농장의 한 성원이 되시였고 수시로 이곳을 찾으시여 농장살림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지 않았던가.

그날 분배모임에 대한 보고를 주의깊게 듣고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많은 분배를 어디에 다 쓸가라고 노래가사를 외우시며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이윽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돈으로 농장에 뜨락또르와 자동차, 농기계를 사서 보충해주자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며칠후 일군과 마주앉으시여 농장에 보낼 기재들을 마련하는데 드는 자금을 계산하시던 우리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저금한 돈보다 더 많다는것을 아시고 다음해 분배몫에서 봉창하도록 하자고 즐겁게 웃으시였다.

이렇게 되여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어린 뜨락또르와 련결차, 자동차가 10리밖에까지 마중나온 농장원들의 노래와 춤속에 파묻혀 농장으로 들어서는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지게 되였다.

감격없이는 들을수 없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유럽의 한 정치활동가는 《나는 세상에 한 나라의 수령이 명예농장원이 되여 분배몫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고 그 분배돈으로 농민들을 위해 뜨락또르며 자동차를 사서 보내주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인류가 농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것은 정말 전설같은 이야기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

우리 수령님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한평생 이 나라의 포전길을 걷고걸으시며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수놓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본사기자 리금분

영원히 전해갈 사랑의 이야기

뜻깊은 기념사진

주체49(1960)년 2월 어느날 해질무렵이였다.

어느 한 논벌을 지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득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멀지 않은데서 두엄을 뒤집는 네댓명의 처녀들을 띄여보신것이였다.

그들에게로 다가가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몸소 걸이대를 쥐시고 두엄을 찔러보기도 하시고 뒤집어보기도 하시며 이 속성퇴비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지난해농사형편은 어떤가에 대하여서도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에게 퇴비생산을 잘해서 올해농사를 본때있게 지어놓고 다시한번 이 장소에서 만나자고 사랑의 약속을 해주시였다.

처녀들은 기쁨에 넘쳐 꼭 농사를 잘 지어놓고 어버이수령님을 기다리겠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사진이나 한장 찍어주시오, 이런 곳에서 처녀동무들과 사진을 찍는것이 얼마나 의의가 있소, 훌륭한 기념으로 될거요라고 하시면서 처녀들을 부르시였다.

작업복차림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괜찮다고, 일하던 그대로 찍자고, 일하는 장소에서는 수건도 쓰고 걸이대도 쥐고 찍어야 기념이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자신의 곁에 세워주시였다.

사진을 찍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에게 이름을 적었다가 사진을 다 보내주라고 이르시였다.

이렇게 되여 농장원처녀들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뜻깊은 기념사진을 받아안게 되였다.

과학기술의 주인으로

주체63(1974)년 1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국농업대회에서 농민들을 과학적영농방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대회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을 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공부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그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선전실을 농민들이 과학기술을 학습하는 장소로 꾸리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그 이름은 농업기술지식보급실이라고 해도 좋고 선전실이라는 이름을 그냥 붙여서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이라고 하여도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거기에 농장의 토양표본, 여러가지 농작물의 표본, 농장의 생산도표, 뜨락또르구조도 같은것을 만들어놓으며 농업과학기술도서도 많이 갖추어놓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업부문책임일군들을 부르시여 선전실을 과학기술지식보급거점으로 잘 리용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면서 여기에 필요한 실험수단들을 충분히 보장해주도록 하시였다.

이렇듯 어버이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들이 짧은 기간에 주체농법보급거점으로 꾸려지게 되였다.

색안경에 깃든 사연

수십년전 5월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느 한 협동농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여러대의 모내는기계가 발동소리를 고르롭게 울리며 논판에 푸른 주단을 끝없이 펼쳐놓는 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였다.

모내는기계운전공들을 몸가까이 부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젖은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다리가 아프지 않는가, 몇시간이나 쉬지 않고 일할수 있는가, 하루에 몇정보나 꽂을수 있는가를 하나하나 알아보시며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눈부신 해빛과 해빛에 얼른거리는 논판의 수면을 번갈아 바라보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에게 눈이 아프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아프지 않다는 운전공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그이께서는 모내는기계운전공들과 모공급수들이 색안경을 끼고 일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색안경을 끼지 않고 일하면 눈이 나빠질수 있다고 하시면서 로동보호물자로 색안경을 공급해주도록 즉석에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평범한 농장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친어버이의 다심한 은정을 부어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대해같은 사랑에 그들은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채히성

위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높이 들고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인 주체53(1964)년 2월 25일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여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오랜 실천투쟁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농촌테제는 우리 당이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갈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기치입니다.

지금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농촌의 세기적인 전변을 안아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있습니다.

동지들!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가 수립된 후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비범한 예지로 사회주의건설의 경험과 우리 나라 농촌건설의 현실적요구를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테제를 발표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의 기본원칙, 농촌건설의 기본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농촌건설구상과 풍부한 경험이 집대성되여있는 테제는 농촌진지를 튼튼히 다지고 나라의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불멸의 사회주의농촌건설대강입니다.

사회주의농촌테제에는 농촌에서의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할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심오하게 밝혀져있습니다.

농촌테제가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훼방과 세계적인 정치동란속에서도 사소한 곡절과 편향도 없이 우리의 실정에 맞게 농촌문제를 훌륭히 해결할수 있는 뚜렷한 설계도를 가지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식의 농촌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환히 밝혀주시여 주체의 사회주의건설리론을 발전풍부화하고 농촌문제해결의 백승의 기치를 마련하신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력사적공적으로 됩니다.

사회주의농촌테제가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50년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문제해결에서 획기적인 전환과 위대한 승리가 이룩된 자랑스러운 년대기로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농민문제, 농업문제와 관련한 불멸의 로작들과 현명한 방침들을 내놓으시여 농촌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습니다.

우리 나라 농촌의 그 어디에나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농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과 함께 포전길을 걸으시며 농촌테제관철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정력적인 령도의 자욱이 력력히 어리여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농업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고 우리의 농촌진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농촌테제에서 사상혁명을 앞세울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속에서 계급교양과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오랜 세월 뿌리깊이 남아있던 개인리기주의사상과 소소유자적근성을 털어버리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농민들을 열렬한 **김일성**주의자로 키우는데 농촌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도록 하시여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였습니다.

선군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수호전이 치렬하게 벌어지던 나날에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그들이 자기 조국, 자기 향토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신심을 지니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을 꿋꿋이 헤쳐올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농촌건설에서 어려운 과업이 나설 때마다 인민군대에서 단련된 수많은 제대군인들과 우수한 로동자들을 농촌에 파견하여 핵심적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농촌진지를 공고히 다져왔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사회주의기치가 굳건히 고수되고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수령결사옹위를 근본핵으로 하는 불굴의 정신력을 지니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싸워나가는 혼연일체의 대화폭이 펼쳐지게 된것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농민문제해결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입니다.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구현하기 위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농업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테제를 발표하신 이후 자립경제의 위력에 의거하여 농촌에서 수리화와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 실정과 농민들의 지향에 맞는 과학농법인 주체농법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농업전선의 사령관이 되시여 온 나라 농촌을 끊임없이 현지지도하시면서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혁신을 안아오시였습니다.

지난 세기 70년대와 80년대 우리 나라 농업생산에서 이룩된 눈부신 성과는 농촌테제관철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국가건설이 전면에 나선 시기에 과학적인 농업혁명방침을 제시하시고 온 나라 농촌에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의 불길과 두벌농사와 콩농사열풍이 일어나게 하시였습니다.

봉건적토지소유관계의 마지막잔재마저 털어버리는 대규모의 토지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천지개벽한 포전들로 자연흐름식물길을 따라 생명수가 넘쳐흐르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으며 온 나라 도처에 대규모의 과일생산기지와 현대적축산기지들이 일떠섰습니다.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도록 국가적조치들을 취해주시고 본보기농장들을 내세우고 그를 따라잡기 위한 사회주의경쟁바람을 일으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혹심한 자연재해와 적들의 비렬한 제재책동속에서도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올수 있었습니다.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우리 농촌이 국가적지원과 공업의 힘있는 방조속에 농업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과학적토대와 물질기술적잠재력을 훌륭히 갖추게 된것은 테제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당과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과시로 됩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농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우리 농촌을 문명하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농촌테제에 제시된 문화혁명과업에 따라 국가부담으로 농촌문화주택과 교육, 보건기관, 문화후생시설들을 건설하며 농업근로자들을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농촌이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일신되게 되였습니다.

농촌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가 수립되고 농업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농업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이 높아졌으며 문화생활조건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의 이르는 곳마다에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 사회주의선경들이 펼쳐지게 된것은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워온 우리 당의 령도가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입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여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신것입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철저히 구현되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협동농장들을 기업적방법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는 체계가 확립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업부문을 현지지도하시며 내오신 분조관리제는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속에 농장원들이 생산과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생산조직형태, 훌륭한 관리방법으로서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고 창성군과 대홍단군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며 군이 지방의 경제문화발전의 종합적단위,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장장 반세기 제국주의반동들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사회주의책동속에서도 끄떡없이 농촌문제해결에서 혁명적원칙을 굳건히 고수하고 사회주의본태를 빛내이며 나라의 농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업적은 강성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습니다.

어버이장군님과 선군령도의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며 농촌문제해결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는 선군시대의 애국자로 키우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집단과 동지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평범한 분조장의 영웅적최후가 영원히 빛을 뿌리도록 해주시고 지난날의 죄과를 털어버리고 재생의 길을 걷는 농장원도 뜨겁게 고무해주시며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한품에 안아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덕과 동지적의리의 품에서 애국농민의 대부대가 자라나고 사회주의농촌진지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을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주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안아오시였습니다.

당의 농업혁명방침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며 온 나라가 농촌을 지원하는 사업이 더욱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과 고산과수농장건설, 남새와 버섯연구 및 생산기지건설과 황해남도물길공사가 진척되고 농업생산과 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마련되였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조건과 불리한 자연기후속에서도 농업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나라의 식량문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수 있는 전망이 열려진것은 농촌테제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사회주의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우리 농촌이 걸어온 승리와 번영의 50년을 긍지높이 총화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초행길을 개척하시고 만년토대를 마련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선군시대 농촌문제해결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를 철저히 관철하여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서한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농촌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불멸의 농촌건설대강입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설계도를 높이 받들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농촌건설업적을 빛내이며 농업생산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무장하고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는 선군시대의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부문 당조직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구현하여 농업생산성과로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문명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에서 문화혁명을 다그쳐야 합니다.

농촌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며 농업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고 농촌마을들을 문명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야 하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치며 이미 이룩한 수리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관개시설들을 건설하고 현대적관수방법을 받아들여 관개체계를 완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농업생산에서 뚜렷이 실증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식량문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푸는 투쟁은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과 웅대한 구상에 의하여 마련된 축산기지와 과일생산기지, 남새, 버섯생산기지들이 최대로 은을 내게 하여 더 많은 고기와 과일,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야 합니다.

모든 분조장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에서 제시된 5가지 임무를 심장깊이 새기고 그대로 구현해나감으로써 농업생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농촌의 선구자, 기수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는것은 테제가 밝힌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기본과업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하며 온 나라가 떨쳐나서 농촌을 로력적으로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내각과 농업지도기관들에서는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농업에 힘을 집중하는 원칙에서 경제작전과 조직사업, 지휘를 짜고들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의 세기적인 꿈과 리상이 실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과 원대한 구상이 담긴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농촌건설강령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의 커다란 자랑이고 긍지입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선군조선의 륭성번영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위대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만세!

혁신적안목이 낳은 비약의 발판

정주시 침향리당위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늘 깊이 연구하고 무슨 과업을 하나 수행한 다음에는 스스로 총화해보고 경험과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끝없는 환희와 격정속에 받아안고 그 내용을 깊이있게 학습하던 리당비서 김명철동무에게는 특별히 가슴에 무겁게 안겨드는 대목이 있었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가슴깊이 새기며 그는 이런 결심을 굳히였다.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을 혁신의 봉화를 들고나가야 할 앞장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대와 믿음에 바로 실천으로 보답해야 했기에 그는 일군들과 농장원들속에서 신년사학습도 철두철미 올해농사를 잘 짓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를 찾는데로 지향시켜나갔다.

여기서 그가 놓치지 않은것은 지난해의 영농실천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비추어 올해의 전투작전을 동원적이면서도 현실성있게 세워나가도록 한것이다.

리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토의를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에 농장의 일군들은 올해농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중요고리들을 포착하게 되였다.

관리위원장 김덕히동무는 지난해의 교훈에 비추어 6㎞에 달하는 물길가시기를 진행하고 여기서 파낸 5 000여㎥의 개바닥흙으로 흙깔이를 진행할 안을 내놓았다.

기사장 로두석동무는 지난해에 받아들여 큰 덕을 본 새로운 모기르기방법을 올해에 더 통이 크게 받아들일 안을 제기하였다.

지난해농사를 통하여 품종배치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깨달은 일군들은 논벼품종을 필지별특성에 따라 바로 정할 안도 내놓았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영농실무적사업에서 새로운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문제와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전투적호소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보다 참신한 방도를 찾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였다.

서로의 창조적지혜가 적극 합쳐지는 속에서 리당비서 김명철, 부비서 김혁철동무를 비롯한 리당일군들은 자신들부터 이신작칙하면서 농장원들의 생산열의를 적극 북돋아주는 문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잘 조직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합리적인 정치사업설계들을 해나갔다.

리당위원회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과업 관철을 위한 사업설계를 지난해 영농실천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면밀하게 해나감으로써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킬수 있는 발판을 든든히 마련하게 된것이였다.

혁신적인 안목과 창조적인 사색으로 농사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발판을 든든히 마련하고 올해의 영웅적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투쟁성과가 크게 기대된다.

본사기자 리종석

앞선 단위를 내세워주고 적극 일반화

배천군의 협동농장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배천군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년초부터 농사차비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히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앞선 단위를 내세우고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농사차비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소석회생산에 힘을 붙어

추정협동농장에서는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논면적에 정보당 많은 소석회를 낼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지난해의 농사를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 제1작업반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작업반에서는 소석회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작업반의 농장원들은 논 정보당 700㎏이상의 소석회를 내서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알곡소출을 그전해에 비하여 훨씬 높이였다.

이곳 작업반에서는 년초부터 능력이 큰 석회로를 건설하고 불을 지펴 많은 량의 소석회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격적인 소석회생산에 들어간 조건에 맞게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농장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석회석과 연료보장을 확고히 앞세워 소석회생산을 계속 늘여나갔다.

합리적인 흙보산비료생산방법

역구도협동농장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흙보산비료를 생산하고있는 제5작업반의 경험을 일반화하고있다.

작업반장의 말에 의하면 작업반에서는 땔감이 적은 자기 고장의 특성에 맞게 거름더미를 리용하여 흙보산비료를 생산하고있다. 생물활성퇴비생산을 위해 200㎡의 면적에 150t가량 쌓아놓은 거름더미안의 온도는 겨울철에도 보통 50~60℃가량 된다고 한다.

종균을 접종한 생물활성퇴비더미안에 여러개의 구뎅이를 파고 니탄과 암모니아수와 같은 물질을 고루 섞어넣은 다음 퇴비를 덮고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생물활성퇴비와 함께 흙보산비료도 생산하고있다.

작업반에서는 논 정보당 5t의 흙보산비료를 낼 계획이다.

작업반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200t의 생물활성퇴비생산을 위한 거름더미속에서 많은 량의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였다.

거름생산의 가장 좋은 방도

향정협동농장에서는 지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도를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효과있게 리용하는데서 찾았다.

농장에서는 제8작업반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고있다. 이곳 작업반에는 현재 백수십마리의 돼지와 닭, 게사니, 염소가 있다. 이런 축산토대에 의거하여 작업반에서는 북데기를 비롯한 거름원천을 집짐승우리에서 밟혀 썩이도록 함으로써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였다.

농장에서는 제8작업반에서처럼 모든 작업반들에서 1t의 거름을 내도 질좋은 거름을 논에 내도록 하고있다.

작업반에서는 올해의 알곡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하기 위하여 집짐승사양관리와 거름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절세위인들의 사회주의농촌건설업적을 천만년 길이 전해가리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50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에 선 주인들로

백두산위인들의 품속에서 첫 자욱을 뗀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긍지높은 삶은 위대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빛발아래 더욱더 값높이 빛나고있다.

애국농민대오가 무성한 숲을 이루고 농업기술인재의 대부대가 육성된것은 절세의 위인들께서 사회주의농촌건설에 쌓아올리신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농촌의 문화생활령역에서도 커다란 발전이 이룩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농촌테제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나날에 수많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과학자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을 농촌혁명가로, 영웅으로 품들여 키워주시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농촌테제가 발표된 때로부터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가 진행된 올해에 이르는 기간 농업부문에서는 수백명의 공화국영웅, 로력영웅들이 배출되였다.

농촌테제가 발표된 후 1960년대에만 하여도 10여명의 농민영웅이 배출되였으며 농업부문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아래 수많은 천리마기수들이 자라났다.

농업부문에서는 년대를 이어 세기적인 비약과 혁신이 일어났다. 이상기후현상으로 수많은 나라들에 흉년이 들 때 우리 나라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풍년이 이룩되였다.

전야에 메아리치는 풍년의 노래소리와 더불어 1970년대에만 하여도 200명이 훨씬 넘는 농민영웅이 배출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쌀로써 충직하게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년대들이였다.

조국이 있고야 땅도 있다는 혁명적신념을 간직한 농업부문 근로자들은 전선에 총탄을 보내는 심정으로 두벌, 세벌농사를 이악하게 지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동지들을 한목숨바쳐 구원한 연안군 오현협동농장 분조장이였던 리창선동무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영웅적최후가 영원히 빛을 뿌리도록 값높이 내세워주시였다.

영웅들의 넋을 이어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많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선군시대 공로자의 값높은 영예를 지니였다.

절세위인들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년대를 이어가며 이처럼 자랑높은 농촌혁명가, 애국농민의 대부대가 자라난것은 억만t의 쌀에도 비길수 없는 내 조국의 가장 귀중한 재부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끝없는 로고속에 농촌에서 문화혁명이 줄기차게 벌어져 농업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농업기술인재의 대부대가 육성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 농업대학, 농업전문학교들을 일떠세워주시고 그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도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리하여 앞으로 몇해동안에 매개 협동농장에 5명이상의 기사, 매개 작업반에 2명의 기수 또는 기사를 배치할데 대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과업이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된데 이어 해마다 그 수가 계속 늘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체계와 농촌의 매 작업반들에 생겨난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농업근로자들 누구나 현대농업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 농기계들을 다룰줄 아는 문명한 사회주의농업근로자로 자라나고있다. 그 나날 농업부문 과학자, 일군, 근로자들속에서 배출된 학위학직소유자는 수천명에 달한다.

우리 농민들이 정치사상적으로나 기술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근로자로 자라난것은 사회주의농촌테제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큰 성과이며 바로 여기에 농촌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가 있다. 하기에 위대한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걸어온 50년력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우리 인민은 농민들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훌륭히 키워 내세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끝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지금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에서 제시된 과업을 기어이 관철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현대농업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과학농사열풍이 안아온 성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대의 농사는 과학농사이며 모든 영농공정이 기술공정입니다.》

위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농촌테제가 발표된 때로부터 어느덧 50년세월이 흘러갔다.

어버이수령님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자랑찬 현실로 꽃피우시려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초강도강행군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충정과 헌신에 의하여 우리 농업은 선군대지에 자랑찬 전변의 력사를 아로새겨왔다.

종자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온 나라 농촌을 련이어 찾으시면서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배치를 잘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전국의 농업과학연구기관들과 농촌들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 나날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우량품종들의 육종도입과 배치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 해당 지방의 자연기후조건과 토양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가장 알맞는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전국적으로 품종배치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다.

최근년간 사리원시 미곡,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 작업반들에서 정보당 10t이상의 알곡을 생산한 비결은 지대적특성에 맞는 다수확품종들을 선정하여 대대적으로 받아들인데 있다.

집약화실현에서 큰 전진을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업생산의 집약화를 다수확의 기본방도로 정해주시였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받들고 부침땅의 리용률을 높여 같은 면적에서 알곡수확고를 높이였다.

지난 시기에는 우리 나라에서 두벌농사를 정주이남지역에서나 할수 있는것으로 되여왔다.

그러나 자연기후조건이 불리한 북부지대의 장강군 읍협동농장에서 세벌농사를 성공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두벌농사를 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확증하였다.

몇해전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드린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에서는 밭 전체 면적에 겹재배에 의한 두벌농사방법을 받아들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이였다.

지난 기간의 농사경험은 두벌농사야말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월한 집약농법이라는것을 실증해주었다.

선진재배기술과 방법을 적극 도입

농사를 잘 지어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선진재배기술과 방법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각지 농촌들에서는 영양알모와 영양랭상모, 속성모, 단지모를 비롯한 실리있는 모기르기방법들을 받아들이였다. 동서해안의 벌방지대들에서 자기 지방의 기후 및 토양조건과 비료수준, 품종의 특성을 고려한 논벼재배기술이 현실에서 은을 내게 하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였다.

강냉이농사에서도 지하해충구제용강냉이종자피복제와 성형모에 의한 강냉이영양단지재배방법을 도입하여 병해충피해를 막고 종자와 영농자재,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온 나라에 몰아친 과학농사열풍은 알곡증산으로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하려는 농업부문 과학자들과 기술자, 일군들, 근로자들의 애국심의 분출이였다.

본사기자

자연흐름식물길과 더불어 복받은 대지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더불어 자연흐름식물길이 도처에 건설되여 조국의 대지가 복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수리화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가장 정당한 수리화방침을 제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대규모자연흐름식물길건설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자연흐름식물길을 많이 건설하여 온 나라의 관개체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성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주체91(2002)년 10월 제2의 대동강으로 불리우는 개천—태성호물길이 첫 대규모의 자연흐름식관개체계의 본보기로 완공된 후 백마—철산물길, 미루벌물길건설이 몇해사이에 성과적으로 완공되였다. 또한 각지 농촌들에서도 중소규모의 자연흐름식물길들을 제힘으로 건설하기 위한 된바람이 불었다. 결과 연 1만여km의 자연흐름식물길이 기념비적창조물로 완공되여 수리화가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인 숙망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우리 나라 농촌들에 대규모 및 중소규모의 자연흐름식물길들이 건설됨으로써 수많은 양수기, 전동기가 없어지고 전기를 쓰지 않으면서도 농경지들에 관개용수를 충분히 보장하는 현실이 펼쳐진것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로 개천—태성호대규모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발기하시고 진두에서 지휘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따라 대동강에 대각청년언제가 솟아나고 수백리에 달하는 물길이 뻗어나가 대운하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자연흐름식물길이 생겨났다. 그처럼 방대한 개천—태성호물길공사가 짧은 기간에 완공됨으로써 대동강의 물이 수백리 물길을 따라 평안남도와 평양시, 남포시안의 10여개 시, 군, 구역의 논밭에 흘러들어 이곳 사람들이 물걱정을 모르고 농사를 짓고있다.

어찌 개천—태성호물길뿐이랴.

백마—철산, 미루벌물길도 선군시대의 자랑높은 창조물이다.

어버이장군님의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평북땅에 백마호가 건설되고 수백리 물길과 각종 구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서 이곳 사람들이 우리 식의 독특한 자연흐름식물길인 백마—철산물길의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미루벌물길도 훌륭히 건설되여 우리 인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주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정주시와 룡천군, 염주군, 동림군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시, 군들에도 중소규모물길들이 건설되여 많은 면적의 농경지에서 안전한 수확을 낼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자강도와 량강도의 시, 군들에도 자연흐름식물길들이 건설되여 그 덕을 보고있다.

하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날이 갈수록 수리화의 위력을 떨치는 사회주의농촌의 자랑찬 현실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오신 어버이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펼친 화폭이라고 긍지높이 자랑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건설된 자연흐름식물길들은 우리 당의 수리화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창길

협동벌에 높이 울리는 기계화의 동음

이 땅에 첫 농기계의 발동소리가 울려퍼졌던 그때로부터 우리 농촌은 종합적기계화실현에서 얼마나 큰 전진을 이룩하였던가.

현대적인 뜨락또르공장과 련결농기계공장들, 뜨락또르부속품공장들과 농기계작업소들이 곳곳에 일떠서 기계농사의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고있는 협동벌, 올망졸망하던 뙈기논들이 농업생산의 기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규격포전으로 전변됨으로써 꿈속에서조차 그려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현실이 오늘 온 나라 농촌에 펼쳐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려면 농촌에 뜨락또르와 수확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농기계를 많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협동벌을 찾는 사람들마다 지난날 등뼈가 휘도록 땅을 뚜지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농민들이 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논밭갈이는 물론 모내기도 낟알털기도 기계로 하고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감자농사의 종합적기계화로 꽃피는 대홍단군으로 가보자.

—감자심기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농사일을 기계로,

볼수록 놀라운 일이다. 봄이면 감자파종기들이 포전을 누벼가는가 하면 여름이면 분무기를 단 뜨락또르들이 발동소리 높이 울리며 김을 잡고 풍요한 가을이면 기계화군단을 방불케 하는 감자종합수확기들이 주먹같은 감자알들을 캐내고있으니 이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자랑이 어찌 대홍단군에만 있으랴.

일찌기 모내는기계가 열번 고장나면 열번 고치고 백번 고장나면 백번 고쳐서라도 기계로 모를 내야 한다시며 농민들이 헐하게 농사를 짓도록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기계농사의 위력을 떨치고있는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모내는 기계들이 발동소리 높이 울리며 벼모를 꽂아가는 모습도 볼만하지만 여러가지 설비들을 그쯘히 갖춘 기계화작업반에서 새것처럼 수리정비되여나오는 각종 농기계들의 모습 또한 멋이 있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만이 아니라 선군시대 본보기단위들인 사리원시 미곡, 룡천군 신암, 태천군 은흥, 재령군 삼지강, 함주군 동봉협동농장과 온 나라의 농장들에서도 기계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다. 바둑판같이 펼쳐진 규격포전들에서 우리 농민들은 뜨락또르의 발동소리를 높이 울리며 기계농사의 기쁨을 한껏 누리고있다.

나라없던 그 세월 가대기와 호미농사가 전부였던 이 땅에 기계농사의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고있으니 어찌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이 격정으로 끓어오르지 않을수 있으랴.

사회주의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전변되고있는 우리 농촌의 놀라운 현실앞에서 사람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고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을 농촌기술혁명의 중요과업으로 제시하시고 한평생 논두렁길을 걷고걸으시며 더 많은 농기계들을 농촌에 보내주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 대홍단군을 종합적기계화의 본보기로 꾸리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많은 뜨락또르들과 자동차, 련결농기계들을 보내주시였으며 벌방지대는 물론 중산간지대 농촌들에서도 기계화의 발동소리 높이 울리도록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오늘의 천지개벽의 새 모습이 이 땅에 펼쳐질수 있은것이 아닌가.

하기에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나아갈 때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반드시 점령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쌀로써 충직하게 받들어갈 결의에 넘쳐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기계화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윤용호

농촌에 대한 끊임없는 국가적지원

위대한 사회주의농촌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온 우리 농업발전의 자랑스러운 력사는 농촌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을 지원하는것은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원칙의 하나입니다.》

농촌을 적극 지원할 때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켜나갈수 있다.

일찌기 우리 농업발전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이에 대해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테제에서 농촌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며 물질기술적방조를 더 많이 주기 위한 사업이 년대와 년대를 이어 힘있게 벌어졌다. 이미 마련된 사회주의공업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공업부문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조치에 따라 각지에 농기계작업소와 농기구공장들이 꾸려지게 되였다. 이와 함께 뜨락또르공장과 부속품 및 련결농기계생산기지들이 일떠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을 적극 떠밀어줄수 있게 되였다.

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농업대학과 전문학교를 비롯한 교육기지들이 일떠섰다. 여기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 기사, 기수들의 대오가 해마다 늘어나 농업생산의 과학기술적발전을 담보해주는 기술인재의 대부대를 이루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분에 넘치도록 많은 국가적혜택을 받아안은 우리 농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뜨거운 은정속에 농촌리들의 학교와 편의봉사시설들이 더 잘 꾸려진것은 물론 희한한 선경마을들이 곳곳에 일떠서 우리 농촌의 교육, 보건, 문화사업전반에서 세기적변혁이 일어나게 되였다.

어찌 이뿐이랴.

농촌진지를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해 끌끌한 제대군인들도 보내주시고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의 불길이 날로 거세차게 타번지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토지정리며 물길공사와 같은 농업부문의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들이 국가적인 힘으로 진행됨으로써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더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농민들과 농사를 함께 책임졌다는 립장을 가지고 온 나라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해마다 농촌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껏 도와주는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확고히 세워지게 된 사실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밑에 년대를 이어온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하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시는 로고와 심혈은 또 얼마나 크나큰것인가.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지난해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업부문에 비료를 생산하여 보내주는 이 기업소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병기창과 같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들자면 남흥에서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비료생산량을 늘이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를 알아보시고 걸린 문제를 몸소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뜻깊은 올해에 농업을 또다시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서 국가적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하며 온 나라가 떨쳐나서 농촌을 로력적으로 도와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끊임없이 강화할 때 농업생산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위대한 농촌테제의 생활력이 더욱 힘있게 발휘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성철

선경을 노래하는 문화농촌

위대한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오늘 우리 농촌에는 가는 곳마다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솟아나 천지개벽의 새 풍치가 펼쳐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살림집을 많이 건설하는것은 인민들에게 문화적이고 안정된 생활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50년전 그날 국가의 부담으로 농촌문화주택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농촌의 면모를 완전히 개변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활짝 꽃피우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5(1996)년 강동군 은정마을을 찾으시고 살림집을 짧은 기간에 완공하여 새집들이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농촌들에 다 이런 집을 짓자고, 모든 일군들이 다 와서 이 마을을 보게 하자고 하시며 강성국가의 체모에 맞는 살림집건설을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새 세기 첫해에는 서흥군 범안리를 찾으시고 력사적인 로작 《범안리처럼 농촌리와 마을들을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으로 꾸리자》를 발표하시여 온 나라가 선경마을건설로 끓어번지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전국의 농촌들에서 선경마을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여 2000년대 중엽에는 은덕마을, 은정마을, 강성마을, 제대군인마을과 같은 뜻깊은 이름의 마을들을 비롯한 1600여개의 새 마을들이 솟아났다.

어느해 가을 사리원시의 미곡땅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곡협동농장의 가을풍경은 선군10경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농촌을 더욱 살기 좋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키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지난 8년동안에만도 메탄가스화가 실현된 2만 8 000여동의 농촌살림집들이 각지 농촌들에 훌륭히 건설되여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내 나라 농촌에 날로 늘어나는 선경마을들은 절세위인들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며 자기 사는 고향을 선경으로 더 아름답게 꾸리려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애국심의 발현이다.

본사기자 황연옥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일념안고 더 많은 거름을 실어내고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반공화국적대행위는 민족의 리익을 해치는 백해무익하고 부질없는짓이다

남조선정보원 첩자 국내외기자회견에서 추악한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대해 자백

우리 공화국에 불법침입하였다가 적발체포된 남조선정보원 첩자 김정욱과의 국내외기자회견이 2월 2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기자회견에는 우리 나라 출판보도부문과 총련의 기자들, 외신기자들, 주조 외교대표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김정욱이 발언하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7일 밤 중국 단동에서 밀선을 타고 공화국경내에 불법침입하여 평양에 들어왔다가 보안원들에게 단속되여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반공화국범죄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먼저 《국정원》의 지시를 받으며 반공화국정탐행위를 한데 대해 말하겠다.

나는 북에 《기독교》나라를 세우려면 현 정권과 정치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의 돈을 받고 북의 사람들을 협조자로 소개, 중개하였다.

뿐만아니라 중국 단동에 지하교회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끌어들인 북의 사람들에게 글을 쓰게 하거나 담화의 방법으로 북의 내부실태자료를 수집하여 《국정원》에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반공화국종교행위에 대하여 말하겠다.

나는 북의 정치체제를 붕괴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도부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씻어버리고 《기독교》사상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북의 사람들앞에서 정치체제를 모독하는 설교를 하고 또 그들스스로가 북을 헐뜯는 기도를 하거나 글을 쓰게 하였으며 그들이 단동으로 오는 남쪽과 미국사람들앞에서 반체제행동을 하게 하였다.

또한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앞으로 만수대언덕을 비롯한 곳들에 《교회》를 세우고 북의 전지역에 500개의 《지하교회》를 세우면 북의 정치체제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나라가 서게 된다고 하면서 《지하교회》를 세울데 대한 임무를 주었다.

다음으로 《탈북자》들을 남쪽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한데 대하여 말하겠다.

나는 2008년 10월 남쪽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한 목사로부터 소개받은 4명의 《탈북자》들을 3국으로 빼돌리다가 단속되여 벌금을 내고 나온적이 있다.

그리고 북에서 넘어온 화교 6명을 3국을 거쳐 남쪽으로 빼돌리였고 내가 운영하는 지하교회에서 생활하던 북의 려행자 전영철도 남쪽으로 보냈었다.

다음으로 지하교회에 끌어들인 북쪽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락시킨데 대하여 말하겠다.

나는 지하교회로 사용하던 세집에 남쪽위성TV를 설치하고 수백권의 반공화국책들도 가져다놓고 북의 사람들을 세뇌시키는데 리용하였으며 서로간의 경쟁심을 부추겨 북의 정치체제와 정책을 헐뜯게 하였다.

《기독교방송》통로를 비롯하여 위성TV통로들이 나오게 하였으며 《탈북자》들의 수기, 북의 지도부와 체제를 헐뜯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종교잡지들을 가져다놓고 수시로 보게 하였다.

나의 상기의 모든 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과 북의 사람들의 인권을 엄중히 침해한 범죄행위라는것을 인정한다.

나는 해당 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 범죄가 어렸을 때부터 반공교육을 받으면서 머리속에 새긴 적대의식에 기초한것으로서 이 모든 행동은 우리 민족의 분렬을 바라는 외부세력과 보수세력에게만 좋은것이며 우리 민족의 리익에는 절대적으로 백해무익한것이고 부질없는짓이라는것을 깨달았다.

지금도 조선북부국경과 린접한 중국변방지역들에서는 많은 《대북》선교활동가들과 《탈북》유도인들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내가 한것과 같은 행동들을 하고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자기 민족에 대한 적대감에 빠져 종교인들까지 리용하는 《국정원》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리용당하여 민족앞에 죄를 짓고있는 《대북》선교활동가들에게 나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뒤늦게라도 잘못을 고쳐나가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본의아니게 죄를 지은 수십명의 북의 사람들에게 지난 기간 중국에서 내가 한 모든 말과 행동들이 거짓이며 범죄라는것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들앞에 사죄한다.

이어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우리 천만군민이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며 지켜가는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감히 어째보려는 극악한 원쑤들의 특대형범죄행위에 정말 치솟는 격분을 금할수 없다.

당신이 우리 공화국국경을 불법침입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대답: 나는 2007년 8월 중국 단동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평양밀입국》에 대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지하교회를 운영하면서 북에서 나온 화교나 친척방문자들에게 《평양밀입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하다,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였다.

2010년 9월경 평양의 사사려행자 김모녀성을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 평양에 힘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지하교회》활동을 할수 있는 사람, 집안배경이 있는 독신녀성 한명을 신앙인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그가 귀국할 때 돈을 따로 주었다.

그후 중국에 다시 나온 김모녀성을 만났는데 믿을만 한 독신녀성을 골랐다고 하면서 그녀성이 기도하는 장면도 기억기에 담아놓았다는것, 그 녀성의 오빠가 힘있고 본인도 예쁘다는것, 그에게 남쪽목사라는 말은 못하고 중국 조선족사업가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하는것이였다.

나는 그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김모녀성에게 우선 그 기억기부터 단동으로 가져오게 하여 확인하였다.

그후 신의주에 온 그 녀성과 몇번 전화통화하였는데 그 녀성은 자기가 인차 단동에 나온다고 하였다.

어느날 단동역앞에서 그 녀성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나는 남쪽에 사는 목사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나는 그 녀성에게 나의 안전을 맡기고 평양에 들어가야 하기때문이였다.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는 표정이 많이 변하고 놀라는것이였다.

그가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여러번 만나 이야기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면서 그를 파악하였는데 내가 원하는 교회일을 할 사람으로 보였다.

며칠후 귀국하는 그 녀성을 만나 신의주에 들어가면 《평양밀입국》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그 비용과 안전여부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평양에 들어가 믿을만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내가 전도하고 교육하겠으니 기도하는 장면, 평양시내의 불미스러운 장면들이 있으면 사진찍어 보내라고 하였다.

그후 그 녀성과 밀입국비용과 안전문제를 가지고 여러차례 전화통화하는 과정에 고려청자기를 나를 통해 남쪽에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나는 그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나의 평양행을 책임지고 안내할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였다.

그리고 내가 몇년전부터 원하던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한 후 밀입국을 결심하였다.

나는 몇년전부터 밀입국에 대해 《국정원》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2010년 9월경 서울에서 《국정원》의 리부장을 만나 때가 되면 밀입국한다는 말을 하였고 그후에도 그를 만나 김모녀성에게 《국정원》활동비외에 나와 같이 부부로 위장할 평양의 독신녀성을 포섭하는데 쓸 돈을 준다고 하였다.

지난해 9월경에는 《국정원》의 한실장을 만나 밀입국선이 만들어져 평양에 갔다오겠다고 하였으며 10월 4일에는 그에게 《낚시》하러 간다고 하였다.

성경과 카메라 등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한 다음 10월 5일 오후 5시경 압록강변 약속한 장소에 나갔으나 배가 준비되지 않아 돌아왔다.

이틀후인 10월 7일 저녁 7시경 다시 약속된 장소에 나가 2시간정도 기다리다가 김모녀성과 함께 배를 탔다.

북쪽대안에 배가 닿은 다음 주변을 살피니 이상이 없었다.

나는 독신녀성과 함께 가던중 8일 새벽 4시 40분경 북의 보안원들에게 단속되였다.

처음에는 화교라고 하고 그것이 거짓으로 확인되여 중국 조선족이라고 하였다가 중국말과 글씨가 안되여 할수없이 나의 신분을 밝혔다.

로동신문사 기자: 당신이 우리 공화국경내에 불법침입한 목적과 당신이 가지고온 짐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으며 그 용도가 무엇인가.

대답: 내가 밀입국한 목적은 때가 되면 북의 민심을 흔들고 현 정권과 정치체제를 붕괴시키는데 리용할 《반체제지하교회망본부》를 평양에 만들어놓고 북의 내부실정과 《지하교회》활동상황을 촬영하여 남쪽교회와 《국정원》에 알려주는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반공교육을 받았으며 단동에 《대북》선교사로 들어와서는 지하교회를 운영하면서 수십명의 북의 사람들에게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성경을 강압적으로 외우게 하고 많은 돈과 물자를 주어 북으로 들여보냈지만 《지하교회》활동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북의 민심을 흔들고 현 정권과 정치체제를 붕괴시켜야 내가 원하는 수십만명이 례배할수 있는 큰 《교회》를 평양에 세울수 있고 또 북의 전지역에 500개의 《교회》를 세울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관할 《지하교회본부》를 만들기 위해 몰래 들어왔다.

내가 국경을 넘어오면서 가지고온것은 성경책들과 기억기카드, MP3 100개, 의약품과 식료품, 극소형카메라, 성록화물CD 40장이다.

기억기카드속에는 《기독교》영화들과 동유럽나라들이 붕괴될 때 지하교회가 큰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의 회상록, 성경강의, 찬송가 등이 들어있고 MP3들에는 북의 《인권》문제를 비방하여 쓴 책을 가지고 만든 련속극, 성경설교집 등이 들어있다.

성경이나 선전물들이 있으면 성경리해를 빨리 하고 효과적으로 전할수 있었으며 내가 돌아가더라도 《지하교인》들이 자체로 그것을 보면서 《교회》를 운영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져왔다.

각종 의약품과 식료품은 신도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가지고왔으며 극소형카메라는 평양시내의 여러 장면들과 《지하교회》활동상황, 《교회》세울 자리 등을 촬영하여 가져가고 성록화물CD는 신도들이 그것을 복사, 밀매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할 생각으로 가지고왔다.

인터네트 《우리 민족끼리》 기자: 당신이 남조선정보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듣고싶다.

대답: 내가 련계하던 《국정원》사람은 《대북》소속 리부장과 한실장 2명이다.

리부장은 2010년 9월경 서울에서 처음 만났는데 54세정도였고 이름은 리영철이라고 하였다.

그는 먼저 나의 인적사항을 적은 다음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나는 당연히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협조내용은 내가 서울에 와서 리부장을 만나는 조건에서 월 500US$와 인천-단동왕복배표값 300US$를 받는것으로 하고 리부장에게 협조자들을 소개하고 북의 최근정보를 알려주는것이였다.

만일 협조자들중에 중요직책에 있는 간부들의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2 000~3 000US$를 준다고 하면서 정보가치에 따라 돈을 더 준다고 하였다.

통신련락방법에 대하여 약속하고 《국정원》협조비 500US$, 배표값 300US$를 받고 령수증에 수표한 후 단동에 들어왔다.

그후 2011년 1월경 리부장이 앞에서 이야기한 김모녀성과의 화상통화를 요구하여 단동에 있는 저의 집에서 1시간씩 2회 통화시키였으며 통화시 나는 자리를 피해주었다.

2월경 서울에서 리부장으로부터 김모녀성에게 주는 《국정원》활동비 3 000US$와 나에게 주는 800US$를 받고 다른 2명을 또 소개해주었다.

3월경에는 리부장이 50가지에 달하는 북의 물품가격을 조사해서 신속하게 알려달라고 하여 왜 이런것까지 조사하는가고 물으니 꼭 필요하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래서 북의 물품가격을 알아내여 리부장에게 보내주었다.

며칠후 리부장이 김모녀성의 귀국후 정보전달방법을 확정하라고 하기에 김모녀성의 중국산 손전화기를 신의주의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를 통하여 서로 련락하기로 김모녀성과 약속하였다.

나는 리부장을 주로 점심시간에 식당이나 커피점에서 5번 만났으며 총 2 600US$를 받았고 만날 때마다 지하교인들을 통해서 수집한 북의 내부실태와 인적사항들을 알려주었다.

《국정원》의 한실장은 2011년 6월경 리부장의 소개로 만났으며 이름이 한지민이고 나이는 47세정도 나보였다.

그가 교인들에 대해 물어보기에 협조자로 될만 한 북쪽사람 5명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는데 한실장은 중국에 와있는 주요인물들가운데서도 사람을 골라보라고 하였다.

그후 나는 한실장에게 윤모녀성과 그와 가까운 사이인 리모라는 무역대표를 소개해주었는데 한실장은 그들이 《국정원》일을 협조하면 크게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단동에서 윤모녀성을 설득하여 무역대표의 허락까지 받아낸 다음 한실장에게 그의 려권복사본과 윤모녀성이 원하는 장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서울에 가서 넘겨주었다.

한실장은 나에게 협조지원서 2통을 주면서 그 양식대로 그들이 협조지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본인이 그것을 읽는것을 촬영하여 동영상카드와 함께 인편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2011년 10월경 단동에서 나는 윤모녀성에게 협조지원서를 주었다.

나는 한실장이 요구하는대로 협조지원서를 쓰게 하고 그것을 촬영하여 인편으로 한실장에게 보내주었다.

며칠후 한실장은 보내준것을 잘 받았다고 하면서 나에게 윤모녀성과 리모무역대표가 심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남방도시까지 온 다음 3국으로 넘어와 자기와 만날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것이였다.

내가 그들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하니 무역대표는 하루라도 손전화기가 꺼져있으면 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그래서 그들과 한실장과의 접촉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후 나는 지하교회에 있던 리모녀성과 안모남성을 한실장과 련계시켜주고 안모가 몰래 물소뿔에 감추어 넘겨보낸 북을 촬영한 동영상자료를 한실장에게 보내준것을 비롯하여 2012년 8월까지 한실장과 10차례 만났으며 총 5 000US$정도 받았다.

이밖에 나는 2012년 2월경 협조자로 될만 한 북의 사람 11명의 려권복사본과 인적사항을 그에게 넘겨주고 그로부터 《대북지원》단체 《김과장》의 이름으로 된 편지 2통을 받아 김모남성과 리모녀성에게 전해주었다.

후에 그들은 나에게 《김과장》이라는 녀성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1 000US$분의 화장품도 받았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자: 당신이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반공화국종교행위에 대해 말해달라.

대답: 나는 먼저 중국 단동에서 북의 사람들에게 감행한 모든 선교행위가 반공화국범죄로 된다는것을 인정한다.

2007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단동에 지하교회를 세운 나는 수십명의 북의 사람들에게 현 정권과 정치체제를 붕괴시키고 하나님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반공화국교육을 주었으며 북에 들어가 《지하교회》를 세우라는 지시를 주었다.

우선 북의 사람들을 돈과 물건으로 유혹하여 《지하교회신도》로 만들었다.

단동에 나와있던 북의 사사려행자들을 지하교회에 유인하여 무료로 숙식시키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훈련시켰다.

다음으로 나는 북의 사람들에게 반국가, 반체제사상을 설교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기독교》의식을 심어주려면 먼저 그들의 머리속에 차있는 지도부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부터 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북지도부에 대하여 극히 원색적인 언어로 모독하고 헐뜯는 행위를 많이 하였다.

대단히 죄송하다.

또한 나는 북쪽사람들에게 《지하교회》를 세우고 반공화국교리를 전파하라고 지시하였다.

나는 《북신도》들이 북에 들어갈 때가 되면 몇개의 《지하교회》를 세우며 어떻게 세우겠는가에 대하여 다짐을 받았으며 대답하는데 따라 돈을 많이 주거나 적게 주었다.

귀국한 후 이웃, 친구, 친척들에게 옷과 식량, 약품 등 많은 돈과 물자들을 나누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하교회》운영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위험하기때문에 3~5명정도로 모이게 하고 보위부, 보안서를 주의하며 내가 준 돈으로 먼저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정교회》, 《이웃교회》를 만들고 차츰 《친구교회》를 만들며 례배는 성경없이 기도중심으로 간단하게 매일 드리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든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 마침내 북체제는 자동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나라가 서게 된다고 하면서 《지하교회》를 확장하고 그 활동상황과 북의 불미스러운 장면들을 촬영하여 단동으로 넘겨보내면 해당한 대가를 주겠다고 하였다.

기도는 반드시 열심히 하고 특히 동상자리마다 《교회》가 서도록 간절히 기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렇게 나는 중국에 나와있는 북의 사람들을 돈과 물건으로 유혹하여 《지하교회신도》로 만들고 공화국을 뒤집어엎는 반체제인물이 되게 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총련 조선신보사 기자: 당신은 남조선정보원의 첩자로 활동하였다는데 남조선정보원에서는 저들의 첩자라는것이 무근거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수 있는가.

대답: 남북간의 언어상, 용어상차이인것 같다.

남쪽에서는 협조자라고 하고 북쪽에서는 첩자라고 하는데 내가 《국정원》의 돈과 지시를 받고 《국정원》의 일을 한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북쪽에서 첩자라고 발표하였는데 내가 보기에는 첩자라고 표현한다 해도 무방하다.

이어 로씨야와 중국, 일본의 기자들이 질문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김정욱의 반공화국범죄행위를 립증하는 자료들을 수록한 록화편집물에 대한 시청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페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지난 2월 4일에 개막되였던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가 페막되였다.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온 나라 천만군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심이 뜨겁게 분출되는 속에서 진행된 경기대회에서 선수들은 평시에 련마한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4.25체육단 남녀선수들은 혁명군대의 체육인들답게 집단주의와 높은 기술을 발휘하고 팀의 전술적의도를 잘 살려 롱구경기(1급)와 배구경기(1급)에서 각각 우승하였다.

빙상호케이경기에서는 수산성체육단 남자선수들과 대성산체육단 녀자선수들이 각각 1등을 쟁취하였다.

페막식이 2월 28일 빙상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리영수 당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과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페막식에 참가하였다.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우승컵, 메달들이 수여되였다.

리종무체육상이 페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뜻깊은 광명성절을 높은 체육성과로 빛내이려는 체육인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전반적종목의 기술이 발전을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선수, 감독들이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우리 식의 기술, 전술체계를 더욱 완성해나감으로써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금메달로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3차 휘궤라스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하였던 우리 교예배우들 귀국

제3차 휘궤라스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하였던 우리 교예배우들이 2월 28일 귀국하였다.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에스빠냐의 휘궤라스시에서 진행된 이번 축전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로씨야, 몽골, 미국, 브라질, 칠레를 비롯한 14개 나라의 이름있는 교예단체들과 배우들이 참가하였다.

체력교예 《철봉과 류동그네날기》에 출연한 우리 교예배우들의 높은 기교와 전회동작들은 심사성원들과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시상식에서는 우리 나라 교예작품에 축전최고상인 금코끼리상이 수여되였다.

비행장에서 한철 문화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이 교예배우들을 마중하였다. 예술인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온 교예배우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축하해주었다.

【조선중앙통신】

3월중 지자기현상

3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양지방

4일(14-16시), 8일(18-20시), 13일(22-24시), 17일(12-14시), 21일(14-16시), 23일(17-19시), 25일(20-22시), 28일(22-24시).

청진지방

4일(13-15시), 9일(19-21시), 12일(21-23시), 16일(17-19시), 20일(6-8시), 24일(18-20시), 30일(11-13시).

영농시기별로 나서는 기술적문제

싹틔우기와 랭상처리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부고산지대를 비롯하여 감자적지에서 감자밭면적을 크게 늘이고 벌방지대에서도 앞그루작물로 감자를 많이 심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지 농촌들에서는 3월 상순에 앞그루감자종자싹틔우기와 랭상처리를 기술적요구대로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평지대들에서는 해당 지방의 기후조건에 따라 2월 하순부터 저장고에서 감자를 꺼내여 싹틔우기를 하여야 한다. 저장고에서 꺼낸 감자종자는 25~30℃의 온도를 보장하면서 뒤지기를 한다음 0.05%보르도액을 분무하고 말리워 싹틔우기를 진행해야 한다.

감자싹은 짧고 실하게 틔워 심어야 한다. 모판에서 랭상처리할 감자종자의 싹은 길이가 2~3㎜ 되게 짧게 틔우는것이 좋다. 그러자면 낮온도가 20℃를 넘지 않게 하고 밤온도는 10℃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며 습도는 80~90%로 보장하여야 한다.

감자종자의 랭상처리도 기술적요구대로 잘하여야 한다.

랭상처리를 하면 우선 봄날씨가 찬 조건에서도 어린 감자포기가 랭해를 받지 않고 잘 자라므로 초기생육이 좋아진다. 또한 빈포기가 생기지 않아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할수 있으며 층하를 없앨수 있다. 생육기일을 한주일이상 앞당기게 되여 정보당 소출을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앞그루감자를 심는 모든 단위들에서는 싹틔운 감자종자를 20일이상 랭상처리하여 심어야 한다.

우선 랭상처리모판준비를 잘하여야 한다.

모판자리는 습하지 않고 양지바른 곳에 정하며 바람막이바자를 잘 쳐야 한다. 모판은 너비 1.7m, 길이 10m, 깊이 15~20㎝ 되게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때 모판 평당 요구되는 부식토의 량은 55㎏정도이다.

랭상처리모판에 감자종자를 질적으로 심어야 한다.

싹틔운 감자종자를 크기별로 골라 끝눈이 올라가게 빼곡이 세워놓는다. 이때 모판흙에 박히는 깊이를 조절하여 감자종자를 모판에 세워놓아 감자의 웃면이 가쯘하게 해야 한다. 그우에 1~2㎝ 두께로 흙을 덮고 물을 충분히 주며 물이 다 잦아든 후 흙으로 웃면수평을 고른다. 활창대를 꽂고 박막을 씌운 다음 바람에 박막이 벗겨지지 않게 새끼줄을 잘 쳐야 한다.

랭상처리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감자모를 튼튼히 키워야 한다.

모판안의 낮온도는 싹이 돋아나올 때까지는 25~30℃, 싹이 30%정도 나온 다음에는 20~25℃ 되게 보장하며 밤온도는 6℃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판에서 싹이 다 나온 다음 모판안의 온도가 20℃를 넘지 않게 나래와 박막관리를 잘하여 모를 단련시켜야 한다. 모판안의 습도는 70~80%로 보장하여야 한다.

논앞그루와 강냉이사이그루를 비롯하여 두벌농사앞그루로 심어 일찍 수확하거나 늦품종의 감자종자를 심는 경우에는 랭상처리기간을 25일로 늘여 감자모있이 4~5잎 되게 키워 심을수 있다.

농업성 부국장 김창길

언제나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해주시 광석동 리명화로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은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를 친혈육과 같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원군길에 온갖 지성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해주시 광석동 26인민반에 살고있는 전쟁로병 리명화로인도 있다.

근 20년간 인민군대원호사업에 뜨거운 마음을 바쳐가고있는 로인의 나이도 어느덧 80고개를 넘어섰다. 하지만 군대를 위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극성스러운 리명화로인이다.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원군길을 걸어야 해.》

로인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군 한다.

그 말속에는 리명화로인이 생활체험을 통하여 심장속에 깊이 새긴 생활의 철리가 비껴있다.

해방전 설명절을 앞두고 안악군의 대지주의 집에서 머슴을 살던 그의 아버지는 연자방아간에서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났다. 부자집아이들은 팽이를 친다, 눈사람을 만든다고 웃고떠들 때 남편을 잃은 그의 어머니는 어린 쌍둥이자매를 안고 한지에 나앉게 되였다. 어머니는 쌍둥이를 살리기 위해 동냥을 다녔지만 차례지는것은 모욕과 멸시, 설음과 눈물뿐이였다. 끝내 쌍둥이자매중 한명이 굶어죽었다.

그가 리명화로인의 언니였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했지만 어린 리명화에게 차례진 일감은 돈있고 권세있는 부자집의 아이보개자리였다. 《아이보개》라는 이름아닌 이름으로 불리우며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아온 그에게 이름을 찾아주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신분은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삶의 요람인 조국이 없으면 또다시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겠기에 리명화로인은 전화의 나날에는 서슴없이 조국보위성전에 나섰고 불타는 산과 강을 넘나들며 침략자들을 무찔렀다. 이 길에서 그는 피와 살도 서슴없이 전우들에게 바쳤다.

전화의 나날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전후에도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리명화로인은 어느덧 년로보장을 받게 되였다.

집에 들어온 그는 그때부터 원군사업에 발벗고나섰다. 그는 자기에게 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고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수십명의 일가식솔을 모두 학살한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이 땅에 있는 한 눈을 감을수 없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집짐승을 직심스럽게 길러 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힘에 부칠 때도 있고 남모르는 고충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리명화로인은 전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삼가 우러르며 생각하였다.

(온 나라 병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여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로고는 그 얼마나 크실가.)

응당 할 일을 한 자기에게 분에 넘친 감사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슴속깊이 새겨안고 리명화로인은 원군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갔다. 로인은 온 가족과 힘을 합쳐 한해에도 많은 고기를 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달리는 살수 없는 그였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올해에도 원군목표를 높이 세우고 인민군대원호사업에 애국의 한마음을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북남공동선언리행은 평화보장의 기본방도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은 북남관계개선을 더욱 추동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는 응당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에로 확고히 전환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여왔고 그것은 지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최악의 긴장상태에로 이어지군 하였다. 바로 지금이 그런 위기상태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2월 24일부터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하였다. 이것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기운을 해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민족은 핵전쟁의 참혹한 재난을 피할수 없다. 하기에 온 겨레는 한결같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리행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실현하고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는 평화를 보장하며 민족의 통일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이 명확히 밝혀져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자면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남공동선언을 지지옹호하고 철저히 리행하는 여기에 자주와 평화, 조국통일의 근본담보가 있습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긴장의 근원을 청산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평화수호선언이다.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끝장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다. 북과 남은 한피줄을 이은 동족으로서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하여야 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 외세에 의해 반세기가 넘도록 전쟁위험을 강요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평화를 열렬히 갈망하고있다. 우리 겨레 누구나 동족끼리 대결하고 피흘리는것을 원치 않으며 전쟁을 견결히 반대하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를 입는것은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다.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터지면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는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가 미치게 될것이다. 평화만이 우리 민족에게 통일과 부강번영을 가져다줄수 있다.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채택된것이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다.

6.15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것을 천명하였다. 6.15공동선언에 담겨진 우리민족끼리리념은 우리 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무기이다. 더우기 6.15공동선언은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간다는것을 밝힘으로써 평화적통일의 립장을 명백히 하였다.

10.4선언은 북과 남이 군사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폭넓은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선언에는 북과 남이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문제, 조선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는 문제 등도 제시되여있다. 특히 북과 남은 10.4선언을 통해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서로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로써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방도가 제시되게 되였다.

10.4선언대로만 하면 조선서해상에서의 군사적충돌을 근원적으로 막을수 있다. 10.4선언은 조선서해를 평화수역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실무적방도들을 밝히고있다.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일대 특히 서해 5개 섬일대에서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다. 이 일대는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도 삽시간에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위험을 안고있다. 만일 조선서해가 평화수역으로 전환된다면 북남사이의 군사적충돌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며 의지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자주통일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불신과 대결의 현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 협력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이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가 지속되고있는 조건에서 힘으로 상대방을 해치려드는 경우 어떤 후과가 초래되겠는가 하는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무력행사에 의거해서는 북남사이에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을뿐아니라 민족전체를 헤아릴수 없는 재난속에 빠뜨리게 된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적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것이며 나라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안전은 항시적인 위험에 처하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통해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할것을 제안한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은 군사적적대행위를 끝장내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이다. 공동선언들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 통일과 분렬의 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선언들을 부정적으로 대한다면 대결과 전쟁을 결코 피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며 그 리행에 적극 나설 때 북남사이의 긴장이 완화되며 평화와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평화보장을 위한 투쟁은 민족의 생존터전을 지키고 자주적운명개척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우리 공화국은 지금까지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심 철 영

조국의 부강발전과 자주적통일을 위해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지지하여 2월 2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은 전체 재중조선인들을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애국열의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태양민족의 건국사에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아로새겨질 올해에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을데 대한 호소문을 열렬히 지지하면서 어머니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돌격전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성원해나갈 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재중조선인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시는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올해 북남관계개선의 활로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지름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올해는 건국의 어버이이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돐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조국통일의 절박함이 겨레의 가슴을 치고 있다.

그 누구든지 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오늘의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는데 총궐기해나서야 한다.

대화와 협상은 전쟁을 막고 대결을 해소하며 북남관계를 푸는 유일한 방도이다.

우리들은 조국인민들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빛내이고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다시한번 높이 떨칠것을 바라면서 북과 남, 해외 각계각층이 애국의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련대하여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적극 호소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조국의 부강발전과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승리의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조국인민들의 힘찬 진군에 발을 맞추어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을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우리 겨레 하나되기운동본부가 2월 22일 서울에서 정기총회를 가지고 올해 조선반도평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 활동할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일본의 재무장과 미일 남조선군사협력강화가 조선반도평화에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해 주장하였다.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소책자를 발간, 배포하며 8.15를 계기로 반일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단체는 전쟁반대투쟁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 벌려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 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3월 1일은 지난날 조선을 무력으로 불법강점했던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파쑈폭압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한 불행과 고통이 더욱 가슴아프게 안겨오는 잊지 못할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95년전인 1919년 3월 1일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요구하여 평화적시위에 떨쳐나선 조선사람들에게 일제는 야수적인 학살만행으로 대답해나섰다.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는 녀학생을 칼랑쳐죽이고 늙은이의 가슴에 총창을 박는 등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맨주먹밖에 없는 평화적시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일제는 3.1인민봉기를 계기로 1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다.

실로 일제의 3.1인민봉기진압은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엄청난 대량학살범죄이다.

문제는 일본의 과거청산회피책동으로 하여 95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 봉기희생자들의 구천에 사무친 원한이 가셔지지 않은것이다.

3.1인민봉기진압뿐아니라 간또대지진때의 조선인대학살만행,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학살사건들과 강제련행, 강제로동범죄, 일본군성노예범죄 등 지난날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일본은 어느 하나도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그 진상을 밝힌것이 없다.

오히려 40여년동안이나 조선을 불법강점하고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에게 참혹한 반인륜적범죄를 저지르며 엄청난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를 준데 대하여 외곡, 부정하면서 일제에 의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함부로 모욕하는 파렴치한 망동을 계속하고있다.

최근년간만 보아도 일본정부당국자가 《구일본군이 사람을 강제로 끌어가는것과 같이 인가에 들어가 위안부로 만들었다는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고 공언하였는가 하면 올해 1월에는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신임회장이 《전쟁을 했던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다.》고 추악한 성노예범죄행위를 정당화해나섰다.

그런가하면 백수십명의 정객들이 집단적으로 야스구니진쟈에 몰려가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씌운 전범자들의 망령을 위로해주고있으며 세계적으로 아직 침략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국제사회를 경악시키고있다.

지금의 일본의 현실은 그야말로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에 들떠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선전하며 제국주의마차를 때려몰던 패망전의 모습그대로이다.

온 국제사회가 과거범죄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하며 경고와 질책을 보내고있지만 《강대한 일본》야망에 들뜬 일본은 위험한 군국화, 우경화의 길로 정신없이 내닫고 있다.

그 끝이 어딘지는 불을 보듯 명백하다.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과거청산회피, 력사외곡행위에 매달리며 정의의 목소리를 끝끝내 외면한다면 두번다시 나라와 민족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게 된다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잘 알기에 제2차 세계대전의 같은 전범국인 도이췰란드는 전후 수십년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하고 나치즘의 부활을 방지하며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두터이 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온것이다.

일본은 이제라도 삐뚤어진 력사관, 사고관을 바로잡고 성근한 자세에서 과거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 아시아인민들에게 끼친 모든 피해와 고통에 대해 옳바로 청산하는데로 나와야 한다.

바로 그 길에만 일본의 앞날이 있다.

주체103(2014)년 2월 28일
평 양

하루빨리 풀어야 할 리별의 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고 야말것입니다.》

보도된바와 같이 며칠전 금강산에서는 우리측 상봉자들과 남조선에서 사는 그들의 혈육들과의 감격적인 상봉이 진행되였다.

고향과 일가식솔들을 남조선에 두고있는 우리측 상봉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의 품에 안긴 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품속에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온 사람들이다. 태양의 품속에서 인생의 영광과 보람을 한껏 느끼면서도 정녕 꿈결에도 잊을수 없었던 혈육들을 부둥켜안은 그들의 눈가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를수 없는 혈육의 정

청진시에 사는 박태호녀성이 집체상봉장소에 들어설 때였다.

《이모다. 저기 우리 이모가 와요.》하고 부르며 한 로인을 부축하면서 먼발치에서부터 달려나오는 남녘의 조카들, 이모의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하고 자란 그들이지만 자기 어머니모색과 신통히도 같은 박태호녀성을 대번에 알아보았던것이다. 어디에 갔다가 이제야 왔는가고 목놓아 웨치며 와락 껴안는 남녘의 언니와 북녘의 동생, 그들의 상봉모습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원한의 분렬장벽도 혈육의 정을 결코 가를수 없었던것이다.

꿈결에도 그리던 남녘의 언니, 조카들과 감격적으로 상봉한 박태호녀성, 그는 60여년전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신 전승열병식주석단앞을 보무당당히 행진해간 조선인민군 녀성지휘관이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에 안기여 크나큰 영광과 행복만을 누려온 자기 모습을 남녘땅에 두고온 혈육들에게 보여주고싶어한 그였다. 상봉탁우에 놓여있는 수많은 훈장메달들과 증서들, 거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남녘땅에 모실 통일의 그날을 위해 심장을 불태워온 한 녀성의 한생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민족을 위한 일을 더 많이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마당은 결코 눈물에만 젖어있지 않았다.

덕천시에 사는 80고령의 리승근로인은 남조선에서 온 동생들에게 《이렇게 만났는데 웃어야지 무엇때문에 울기만 하겠는가. 아직 전쟁때 헤여졌다 찾지 못한 형제들이 있지만 나는 울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모형제들을 고향에 남겨두고 혈혈단신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한순간도 동생들을 잊은적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속마음을 깊이 헤아려주시여 이렇게 감격적인 상봉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은혜에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분께서 온 겨레를 통일에로 불러주시는데 우리 가족은 눈물이나 흘릴것이 아니라 통일의 날 다시 만날 약속을 안고 그날을 위해 웃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많이 하자고 동생들을 고무해주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사는 김영희녀성과 만난 남녘의 혈육들은 그가 공화국의 품속에서 82살의 고령같지 않게 젊음에 넘쳐있는데 대해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평양시 대동강구역에서 사는 조매숙녀성의 동생들도 그의 남편이 개선문과 인민문화궁전을 비롯한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데 기여한 이름있는 설계가였다는 소식을 남녘땅에서 전해듣고 몹시 놀라고 기뻤다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함흥시에 살고있는 권병철로인이 받은 수많은 훈장들과 메달들, 명예칭호증서들을 정히 쓸어보는 남녘의 혈육들의 얼굴에도 경탄의 빛이 력력하였다.

신념의 웨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참가자들을 위한 연회때 있은 일이다. 갑자기 《김정은원수님 만세!》, 《조국통일 만세!》의 우렁찬 함성이 련속 터져올랐다. 이 신념의 웨침을 선창한것은 평성시에 사는 최준규로인이였다. 전쟁로병인 그는 남녘의 조카들에게 가렬처절했던 전화의 나날 자기 생명을 구원해주시고 희생된 아버지를 애국렬사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그 고마운 은정을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돌아가서 고향의 친척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줄것을 당부하였다.

조국통일의 그날 남녘땅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두고 모시고싶어하던 우리측 상봉자들의 간절한 소원은 피현군에 사는 박재선로인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장소에서 격정에 넘쳐 부른 《사향가》의 선률에도 그대로 어리여있었다. 그는 노래를 들으며 눈굽을 적시는 누이동생들앞에서 이 노래가 바로 항일전의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날을 그리시며 지으신 노래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였던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려는 맹세를 담아 《삼천리강산 우리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 다시 만나자.》고 격정을 터치였다.

상봉장에 울려퍼진 이 웨침들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투쟁해나갈 때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철리를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깊이깊이 새겨주었다.

본사기자 박철준

중국외교부 미국집권자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

중국외교부 상무부부장 장업수가 최근 자기 나라 주재 미국림시대리대사를 호출하여 미국집권자의 부당한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그는 미국집권자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달라이라마를 만난데 대해 문제시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중국내정에 대한 엄중한 간섭으로, 《티베트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위반한것으로 락인하였다.

티베트는 중국령토의 신성한 한 부분이며 티베트문제는 순수 중국내정에 속하는것으로서 미국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밝히고 그는 중국정부는 그 어느 나라의 정객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달라이라마를 만나는것을 견결히 반대한다고 천명하였다.

한편 외교부대변인 진강은 미국이 반중국분렬세력을 비호두둔하지 말며 중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파렴치한 내정간섭행위를 규탄

베네수엘라외무성이 2월 20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행위를 단호히 규탄배격하였다.

최근 미국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정치정세에 관한 그 무슨 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그것이 전혀 무근거하며 자주적인 국가에 대한 란폭한 내정간섭행위로 된다고 단죄하였다. 정부는 나라에 불안과 분쟁의 씨를 뿌리려는 미국의 책동을 저지파탄시킬것이며 내정간섭적인 대외정책의 진면모를 전세계에 폭로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짐바브웨에서 전 미국회 의원 추방

짐바브웨정부가 위법행위를 한 전 미국회 의원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나라 신문 《헤랄드》는 지난해 11월 《출장》 목적으로 짐바브웨에 입국한 그가 색정편집물들을 소유하고있은데 대해 폭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몽골에서 집짐승방목

일본의 죄악의 력사를 반드시 결산할것이다

오늘은 력사적인 3.1인민봉기 95돐이 되는 날이다.

지난 세기초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우리 인민에 대한 탄압과 학살, 식민지적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기에 미쳐날뛰였다.

1910년대에 일제는 조선인민의 거세찬 반일투쟁을 말살하며 저들의 조선강점을 영구화할 목적으로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저들의 군대와 헌병, 경찰 및 감옥 등으로 조선 전지역을 뒤덮었으며 강점군에게 우리 인민들을 마음대로 학살할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다. 지어 일본인소학교교원들에게까지 칼을 채워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총칼폭압정치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 야수적으로 고문, 학살하였으며 경제적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고 민족문화를 유린말살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쌓이고쌓인 분노를 폭발시켰다.

1919년 3월 1일 강도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두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던 전체 조선민족은 남녀로소 할것없이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일제강점자들을 반대하는 항쟁의 거리, 투쟁의 마당에 떨쳐나섰다. 이것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존엄있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의 분출로서 지극히 당연한것이였다.

하지만 일제는 우리 인민의 정당한 3.1인민봉기를 《폭력집회》, 《란동시위》로 몰아붙이고 헌병, 경찰, 의무소방대 등 폭압력량을 총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탄압해나섰다. 일제는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방대한 조선주둔 일본군과 재향군인 등 무력이란 무력은 다 시위탄압에 내몰았으며 일본본토의 병력까지 끌어들여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력사에는 집회와 시위를 막기 위해 헌병과 경찰들을 동원한 사실은 있지만 정규무력까지 총동원하여 적수공권의 평화적시위자들을 잔인하게 탄압학살한 례는 일찌기 없었다.

일제는 맨주먹을 부르쥐고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는 평화적시위자들을 총칼폭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티끌만큼의 인정사정도 없었다.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려죽였으며 불에 태워죽였다. 군도에 두팔이 잘려워 더는 움직일수 없는 순간까지도 《조선독립 만세!》를 목청껏 웨치며 시위대렬에 목소리를 합치는 어린 녀학생에게 맹수무리처럼 달려들어 칼로 란랑쳐죽인 일제군경들의 포악한 만행…

이것은 3.1인민봉기가 일어난 첫날 서울에서 있은 일이였다. 일제의 살륙만행은 나날이 확대되였다.

일제살인귀들의 야수적인 살륙만행으로 1919년 3월부터 5월말까지의 기간에만도 4만 6 900여명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이 검거투옥되고 1만 5 900여명의 부상자가 났으며 7 500여명이 무참히 죽었다.

3.1인민봉기 참가자들에 대한 일제의 만행이 얼마나 잔악하였던지 일제의 한 어용학자까지도 《일본인들은 차마 볼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탄압에 광분하였다. …일본헌병의 포악성은 형언할수 없는바 그들은 늙은이와 부녀자, 어린이들까지 총검으로 찔러죽이고 목을 달아매여 죽이였다.》라고 실토하였다. 일제의 중세기적파쑈폭압과 무차별적인 살륙만행으로 하여 우리의 강토는 무고한 인민들의 붉은 피로 물들여졌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 1항과 민사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는 《매 개인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매 개인은 누구의 간섭이 없이 자기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일제는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되찾기 위한 3.1인민봉기 참가자들에 대한 귀축같은 탄압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대학살범죄가 아닐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피로 얼룩진 과거력사를 외곡하면서 3.1인민봉기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비롯한 대중적학살만행과 그외의 모든 죄행들을 전면부정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오히려 저들이 그 무슨 《근대화》를 도왔다는 등으로 얼토당토않은 나발을 불어대고있다.

력사적사실은 감추지 못한다. 지난 2007년에 일본에서는 3.1인민봉기진압당시 조선주둔 일본군사령관이였던 우쯔노미야 다로의 15년분의 일기 등 대량의 자료가 발견되였다. 거기에는 3.1인민봉기때의 상황에 대해 《서울 남방에서 일본군이 약 30명을 교회에 몰아넣고 학살, 방화》했다고 씌여있다. 그러면서 《사실을 사실로 처분하면 가장 간단하지만 학살, 방화를 자인하는것으로 되며 제국의 립장은 심히 불리》해지므로 마을사람들이 《저항하여 살륙한것으로 하고 학살, 방화 등은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한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자기 상급에게 제출한 《소요사건에 관한 민정첩보 제9호(3월 1일—3월 10일)》에는 이렇게 기록되여있다.

《체포 남자 5만명이상, 녀자 1 000명

사망자 남자 1만명이상, 녀자 300명

부상자 남자 5만명이상, 녀자 1 000명

어린이사망 300명이상》

이것은 극히 축소된 자료이지만 일제가 남긴 력사기록이다.

1907년에 체결된 국제법적규범인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조약 및 규칙의 제23조, 제46조에는 명백히 평화적주민에 대한 학살은 3대국제범죄중의 하나로서 인도에 관한 중대범죄에 속한다고 규제되여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5조와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6조를 비롯한 국제법들에는 대중학살은 전쟁전이나 전시에 감행되였든, 해당 국내법에 저촉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명백히 전범죄로 될뿐아니라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에 따라 무조건 징벌되여야 할 특대범죄로 규제하고있다.

이것은 일제가 감행한 무차별적인 3.1인민봉기탄압행위가 정치도덕적으로는 물론이고 국제법상으로 보아도 절대로 시효가 있을수 없는 특대형반인륜적범죄에 속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이 한쪼각의 량심이라도 있다면 3.1인민봉기탄압과 같이 조선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살인범죄를 비롯하여 일제의 모든 반인륜적범죄들에 대하여 성근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며 응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종주국이 식민지예속국들에서 저지른 종족 및 인종멸살행위들이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문제시되고있으며 그와 관련한 청산을 바로하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 강화되고있다. 하지만 일본은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면서 과거청산을 회피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오히려 력사를 부정외곡해나서고있다.

조선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그 무슨 《기념행사》놀음을 벌리고있는가 하면 야스구니진쟈참배를 통하여 군국주의전범자들을 《영웅》으로 둔갑시키고 침략력사를 찬미하고있으며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인 성노예범죄문제를 《돈을 바라고 매춘부들이 한 자발적인 행위》로 뒤집고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망발을 늘어놓고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나 과거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 청산을 모면해보려는 도덕적저렬한들의 파렴치성, 비인간성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준다.

일본반동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유린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의 과거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일본은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을 똑바로 보고 죄많은 과거를 하루빨리 청산하여야 한다.

김 철 룡

ㄱ-41033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